

## 최근 개에 나타난 맹장염의 몇가지 예



### 조 준 행

어느덧 수의사면허를 취득한지도 27년이 지났으니 첫놈이 수의사가 될 수도 있는 나이에 이르렀다. 그간 몇번의 정치적, 경제적 대변혁을 치렀으며 또 새로운 치료법과 여러가지 경이적인 약품도 구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 질병의 예방이나 진료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 질병을 산으로 가정하면 마치 하나의 산을 정복하면 그 이웃에는 또 하나의 산이 보이는것과 같다.

이제 한국인의 생활도 여러면으로 향상되어 중류이상의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고 옛날의 사치와 허영에서도 잠을 깨어 인생의 행복이 자신의 건강과 취미생활을 통하여 이웃을 알고 이해하며 서로 도울수 있을때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다.

이와같이 취미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완동물 기르기는 메마른 우리 정서생활을 윤택하게 하여주고 특히 개 기르기는 여러가지

면으로 유익하다.

최근 건축되는 훌륭한 주택들은 좌식 생활에서 입식생활 위주로 건축되며 전보다 생활공간이 넓어져서 그동안 밖에서 천대받았던 개들도 사랑하는 주인과 같은 방에서 같은 식사를 하게 되니 대체적으로 그전과 같이 거칠은 음식이나 부족한 식사량으로 굶주리거나 기후의 심한 변화나 이웃의 학대로 부터 벗어나 개의 각 종류에 따른 우아한 용모와 특출한 품성을 더욱 풍기게 되어 덩달아 견공의 품격은 많이 향상되고 이로 인하여 견공의 수명도 현저하게 길어져서 가끔 육체의 노쇠로 인한 자연사까지 소동물 임상개업의는 종종 접하게 된다.

많은 개들이 생활공간의 여유로 밖의 생활터에서 방안으로 들어와 주인과 같이 기거하면서 부터 개가 밖에서 살때 별로 볼 수 없었고 사람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병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소동물임상수의사는 이러한 질병의 근원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의 질병도 일반사람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알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질병을 본격적으로 동물의 병과 비교연구하여 새로운 병에 대한 예방 치료방법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 역시 임상수의사의 새로운 정신적인 부담으로 등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제까지 알려져왔던 인수공통전염병외에도 과거에는 없었거나 미처 알지 못하였던 질병중 각종 신경증과 각종허니아 또는 갑상선종이나 각종 암등과 맹장염등은 여러 질병중에서도 외면 할수없는 질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본인은 최근 개·고양이에서 나타난 맹장염에 대해서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고하여 앞으로 이 문제를 더욱 알차게 해결하는데 여러분의 스스럼없는 비판과 성토를 바란다.

개에 있어서 맹장염이란 아직 희귀한 질병에 속하고 있으나 이 병이 과거에는 아주 없었던 병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개·고양이의 맹장염은 과거 문헌이나 잡지에 게재된 맹장염과는 좀 다르다. 과거에 알려졌던 개의 맹장염은 거의 맹장충에 의해서였으나 최근 본인이 경험한 맹장염은 맹장절제수술로 잘라낸 맹장내에 맹장충이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개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로 소화기계의 형태적인 장기적응력이 미쳐 뒤따르지 못하고 불규칙적인 식사나 갑작스런 폭식과 개스가 많이 발생할수 있는 음식을 먹은후 운동이 부족하여 복사근들이 나태되거나 이로인한 장운동이 시원치 않거나 신경이 예민한 개에서 정신적인 속크를 자주 받을때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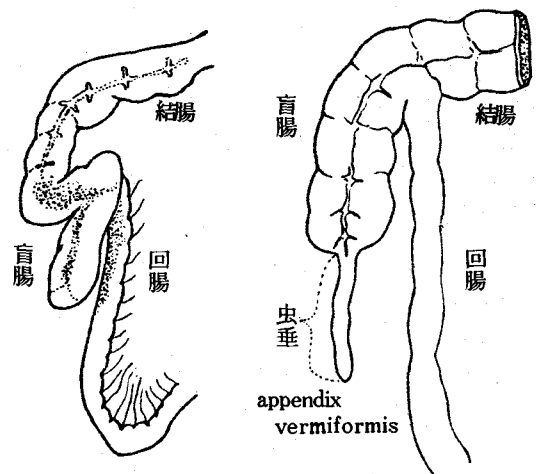
과거의 개 맹장염은 거의 맹장충에 의해서였고 이제까지의 많은 문헌들은 맹장충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다. 이 맹장충은 犬鞭虫 *Trichuris vulpis*를 가르킨다.

그러므로 전에 하였던 맹장절제수술은 개의 견편충증을 내과적인 약물요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만성견편충증에서 최후의 방편으로 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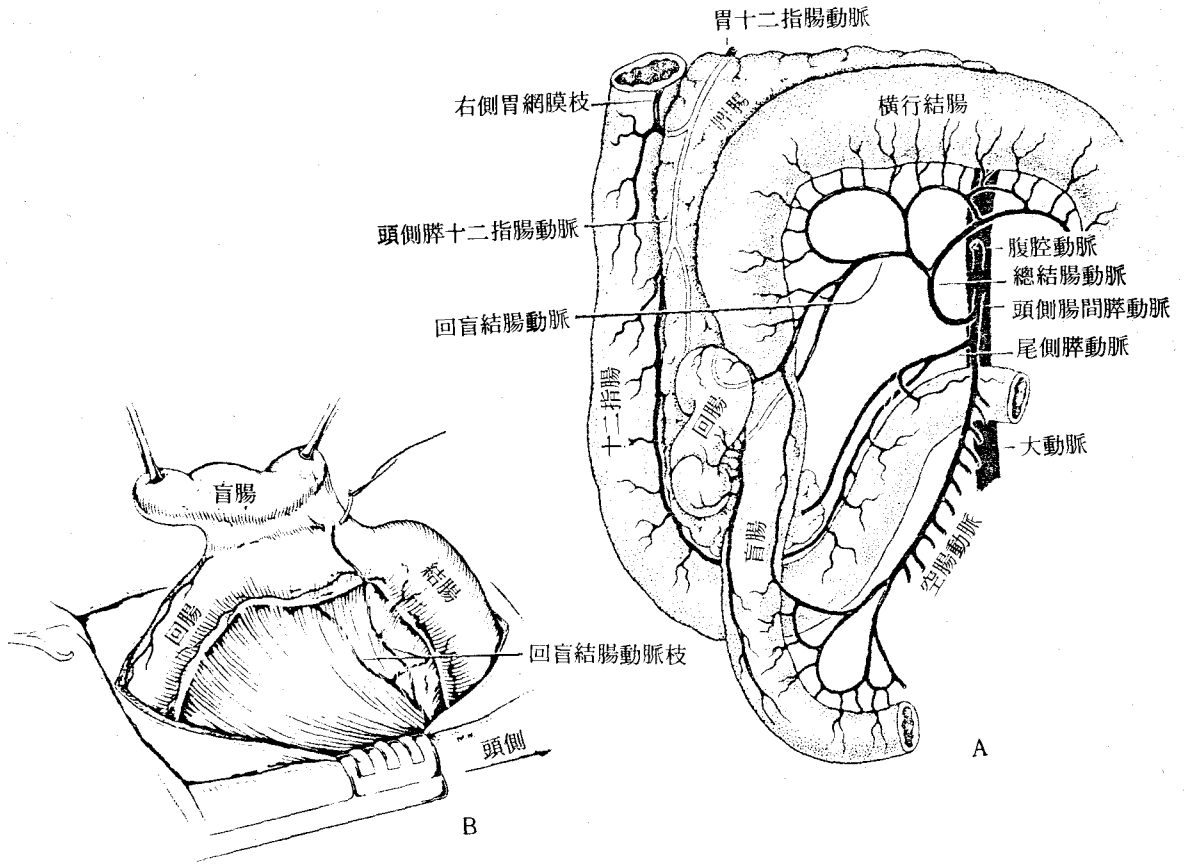
장제거수술을 하였던 것인데(어느 학자는 맹장제거수술을 극히 반대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는 수술환경이 원만하지 않았을때 일로 알면 되겠다) 최근 본인이 시술한 몇가지 맹장제거수술은 견편충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단지 맹장부위에 염증으로 인한 제거수술이었고 수술받았던 6마리의 개들과 3마리의 고양이중 개 2마리와 고양이 1마리는 수술후 곧 사망되었는데 이제까지 알고있는 지식으로는 사망한 3마리 모두 너무 오랫동안 앓고 있었으며 전신이 몹시 쇠약하여 살릴 가망은 무시하고 실시하였는 바 개복후 간 이외의 모든 장기에 이상이 없었고 단지 맹장부위만이 검붉게 종대되어 심한 염증과 개스가 충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개·고양이 6마리는 맹장제거후 모두 건강을 되찾아서 본인은 개·고양이 맹장염의 조기발견과 맹장제거수술로 인한 결과가 대단히 양호하였음을 보고하게 되었다.

먼저 사람의 맹장수술과 개의 맹장수술을 비교할때 사람의 맹장수술은 거의 맹장염이 아닌 충양돌기염(虫樣突起炎)의 제거수술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자세히 사람의 맹장과 개의 맹장을 비교하여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그림 1) 盲腸比較 佐犬 右人



(그림 2) A 盲腸의 해부학적 위치 B.開腹후 노출된 盲腸

이상과 같이 개의 맹장제거수술은 사람의 맹장수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렵고 큰 수술로써 본인의 작은 경험으로는 개에 따라 맹장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얼마전에 부검한 50일령의 닥스훈드종 송에서는 사람과 같은 충수돌기가 맹장에 붙어 있어서 사진도 찍었다. (사진1)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한 몇마리의 예에선 그 원인이 거의 불확실하나 섬세하게 관찰하면 대체로 어린개나 나이많은 개에는 없었고 활동이 심한 생후 3~4개월(小型犬) 생후 5~6(大型犬)개월 사이의 개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폭식을 하거나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는 개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구토증이나 설사후에도 잘 나타났다.

맹장염에 걸린 개의 몇가지증상

① 초기에는 구토, 설사를 하나 차츰 병의 진행에 따라 구토설사없이 결식한다.



(사진 1)

② 자세는 사지를 부자연하게 들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다. (사진참조) 그리고 움직이기를 꺼린다.

③ 안면은 차분하게 권태롭고 눈에는 광택이 없다. 다시 말하면 거치른 얼굴에는 생동감을 찾을수 없다.

④ 침이 흐르나 2~3일후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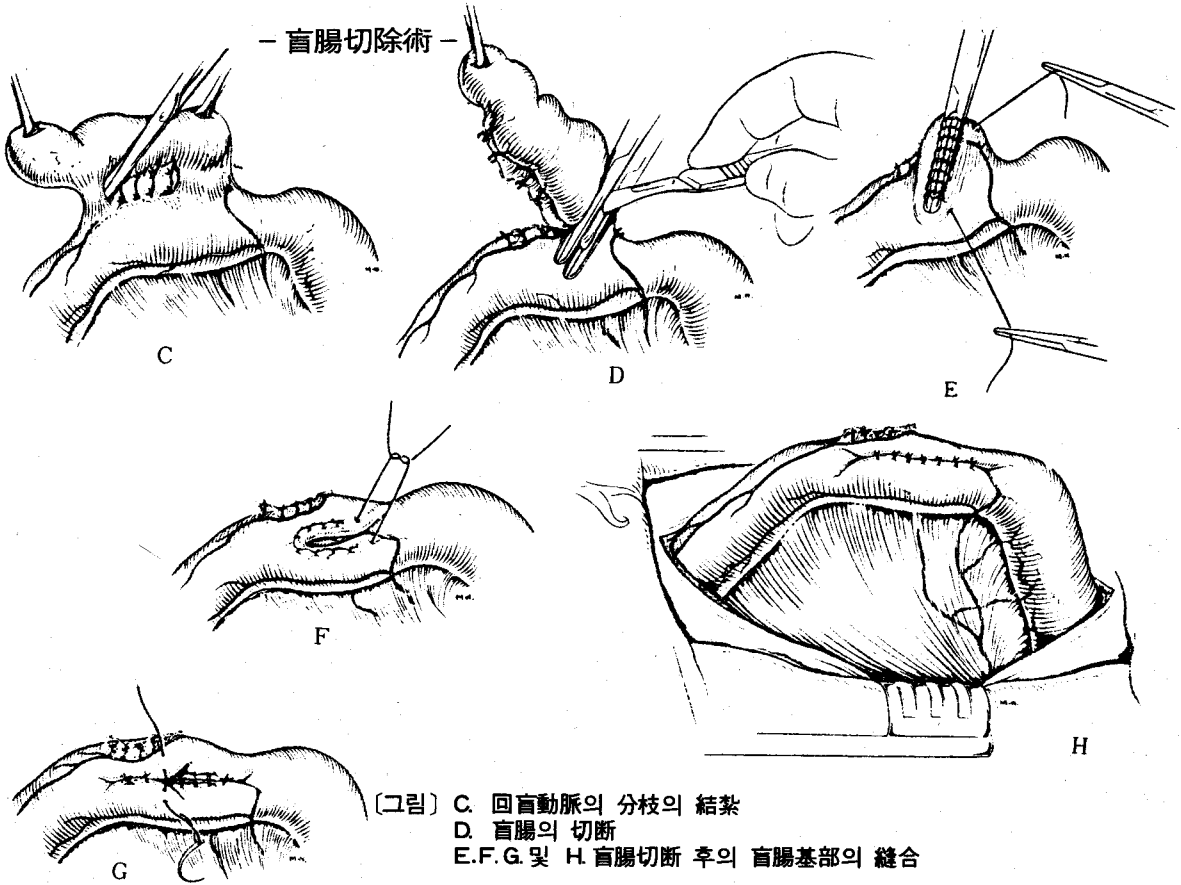
⑤ 음식을 먹지못해서 복부의 용적이 적어져서 허리둘레가 적어진다.

⑥ 그러나 우측 하복부를 손으로 촉지하면 조

금 종대됨을 간신히 느낀다. 그리고 이 맹장부의 통감은 개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⑦ 거의 열이 없으며 맥박도 약하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한다.

다시 되풀이하면 복벽이 긴장되고 근육성방어가 우측하복부에 있고 백혈구도 증가할 것이며 우측하복부에 압통이 있으며 사람에서와 같이 복부를 손바닥으로 눌렀다가 떼때에 아픔을 더 느낀다. 그리고 압통의 정도가 반듯이 누웠을때 보다 왼쪽으로 눕혔을때가 더 강하다.



### ● 구별해야 할 질병

급성위염, 급성장염, 담낭염, 뇨관결석, 장폐석, 암개의 자궁외 임신, 자궁부속기염 등이다.

(수술방법은 다음호에)

### [ 참고문헌 ]

Horney, F. S. and Archibald, J.: Canine Surgery., 607p  
LEONARD: Fundamentals of SMALL ANIMAL SURGERY., 181p.

私業重雄: 獸醫外科学., 131p.

鈴木五郎: 新外科手術書., 908p.

鄭昌國, 南治州著: 外科手術의 基礎實技., 214p.

長倉義夫: 犬疾病学 外科篇., 303p.